

축산물 유통의 개선 대책

— 육류를 중심으로 —

具 本 賢

농협중앙회 축산과장

1. 축산물의 유통이란 축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하며 유통 과정은 축산물이 少量에서 大量으로 집하 모집되는 과정과 지역별 시기별로 재고를 조정하는 과정 및 각 수요자에게 분산 배급되는 과정으로 大分할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축산은 “生産만하면 소비가 되는(Sellers Market)”영역에서 경영이 이루어 졌으나 소비 및 생산 물량이 증대되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생산품의 유통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게 되었다. 工業品과 대비할때 축산물의 유통에는 일반 농산물과 같이 많은 특징이 있다. 즉 영세 규모의 분산 입지하고 있는 다수의 생산자가 생산 공급 함으로 독점 공급에 의한 시장 조절이 곤란할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축산물 자체의 특성으로 생산자 공급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과중하고 유통 단계가 복잡하여 유통 비용이 과다히 소요된다.

2. 축산물 유통의 기능은 교환기능 물리적 기능 및 거래 촉진 기능으로 구분할수 있다. 교환기능(Exchange function)은 소유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으로 매입 및 매출활동이 이에 속한다.

물리적 기능(Physical function)은 수송과 저장등의 활동이 이에 속하고 거래 촉진 기능(facilitating function)은 표준화, 금융 위험 부담 및 시장 정보활동이 해당

된다.

현재 축산물 유통상의 가장 큰 취약점은 거래 촉진 기능이 미약한 것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표준화된 축산물의 량과 질에 대한 규격의 통일을 말하며 대량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공정 거래 형성의 기본이 된다. 매입과 매출시의 시간적 간격을 活用하고 임시 재고의 확보를 위한 유통 자급의 공급을 위하여는 금융이 필요하며 축산물의 현재 가치와 미래가치와의 격차로 유통과정상에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위험 부담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유통과정상에 발생 할수있는 손실은 화재 수재등의 재해에 의한것과 부패 변질 감도 등 物的 처리 과정상의 손실 및 가격 변동에 따른 것으로 세분할수 있다. 재해와 물적 처리 과정상의 손실은 기술 수준의 향상과 보험 共濟 제도의 발달로 어느 정도까지는 可-비할수 있으나 가격 변동에 의한 손실(PRICE RISK)은 축산물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 하여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양축가가 생산 및 출하를 계획하는데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축산에 대한 정책 동향, 소비자의 기호성, 수송사정, 가격동향등 각종 자료를 모집하고 분석하고 전파하는 시장 정보의 기능도 축산물 유통의 원활을 위한 당면 과제중에 하나이다.

3.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상에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선 주요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전국에는 5백여개의 가축 시장이 있어 生畜매매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시설이 미비하여 우형기 마져 없는 시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래 제도도 중개인에 의한 중개 거래가 위주임으로 공정 거래의 형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금년부터 가축 시장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영세 시장은 통폐합하고 육성해야할 시장은 시설을 과감히 개선하고 거래 방법도 지난해 몇개 시장에 시형적으로 도입한 경매 방법을 확대 실시키로 계획하고 있어 生産 거래는 많이 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의 수송은 도로조건, 수송거리, 취급 상인 1인당 매회 취급규모, 수송비용등의 요인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되나 소의 경우에는 사람이 물고가는 경우도 허다하나 화물 자동차 이용이 가장 많고 돼지및 닭은 주로 자전거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의 수송은 生畜 수송이 위주임으로 수송비용과 수송 감량을 증가시키는

〈表 1〉 소(牛)의 수송감량

수송구간	생체 중량	수송 방법	수송소 요기간	감량	B/A (%)
영산포 —서울	385kg	기차	3—5日	45kg	11.7
		트럭	1日	27kg	7.0
대구 —서울	430kg	기차	2—3日	50kg	11.6
		트럭	1日	27kg	6.3

1970 농업 경영연구소

〈表 2〉 生牛 가격의 월별 변동 지수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수	93.3	95.8	101.7	103.8	108.0	106.0	100.7	101.0	100.8	101.1	96.1	91.7

※ 농협중앙회 조사부

—년간평균을 100으로봄—

요인도 되고있다. 콜드 체인(Cold chain)의 미비와 제도적 제한등이 있으나 육류의 대량소비 시대를 대비하여 產地에서 도살후 지육으로 수송하는 방법의 도입도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한다

저장은 지육의 선도(鮮度) 유지와 위생처리를 위한 단기 저장과 시간적 配分의 조절을 위한 비축 저장으로 구분된다. 지육은 도축후 위생처리를 위해 24시간을냉동 저장후 소비자에게 공급 되어야 하나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도축장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판매에 급급한 나머지 기존 냉장 시설도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수요 공급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가격 등락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비축 제도도입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나 비축 시설과 비축 금융의 미비로 아직은 구상의 단계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축산물은 生畜과 肢肉이 共히 표준화 또는 등급화 제도가 없이 거래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는 68년 7월5일 정부에 의해 등급및 규격제가 마련 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重量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 지고있다.

生畜 거래시는 그나마 計量도 없이 目測에 의한 거래가 많아 공정 가격 형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우 비육 사업의 추진으로 비육이 잘된 소가 다수 출하되고 있으나 우시장에서 生체로 거래시는 重量에 따른 평가 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공판장에 출하시에는 지육율의 차이에서 오는 수취 가격 조건상의 우대는 받고 있으나 肉質의 차이는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

하고 있어 품질의 등급화는 비육 사업의 장려 및 사육 기술 개선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도 비육이 잘된 소 일수록 生体로 매매하는 것 보다 도축후 지육으로 매매하는 것이 양축가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상품으로서의 축산물의 물리적 특성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의 과중은 유통 마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다. 1976년 8월 농협 중앙회가 조사한 상인을 경유시의 축산물 유통마진조사에 의하면 총 유통 마진은 소의 경우는 소비자 지불 가격의 19%, 돼지는 28.6%, 육계는 23.5%나 되며 순마진도 소가 6.6%, 돼지 18.4% 육계 15.8%나 된다.

(表3) 상인조직 경유시 축산물 유통마진

	농가 수취가격	유통 마진		
		유통비용	순마진	계
소	81.0	12.4	6.6	19.0
돼지	71.4	10.2	18.4	28.6
육계	76.5	7.7	15.8	23.5

—소, 돼지: 전주—서울

육계: 서울근교기준—

적정 수준의 유통 마진은 축산물 유통의 촉매 작용을 하지만 과도한 유통마진은 생산자의 수취 가격 수준을 하락 시키거나 소비자의 지불 가격 수준을 상승시켜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시장 정보체제의 미비로 발생하고 있는

(表4) 한우의 生畜 및 精肉 가격 추세

구분	월별	75/1	4	7	10	12	76/3	10
		產地 生畜 가격(천원)	180	195	194	202	217	285
가격(두당)	지수	100	109	108	112	120	158	178
서울 精肉가 격(600g당)	가격(원)	830	950	1,000	1,000	1,200	1,400	1,500
	지수	100	114	120	120	144	168	180

현상중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생산지의 생축 가격과 소비자 지육 가격의 괴리 현상이다.

한우의 예를 들면 75년 4월을 기준으로 대비할때 7월은 기준시점보다 생축 가격은 1%가 하락 하였는데도 서울의 정육 가격은 6%가 상승 하였다. 또한 동년 10월 대비 12월은 생축 가격은 8%가 상승하였으나 정육 가격은 24%가 상승하였다.

4.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상의 주요한 문제점 들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유통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 해야할 과제들은 많으나 지면 관계로 주요한 사항 몇가지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유통 마진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양축의 집단 및 단지화, 유통 조직의 정비 및 대형화와 유통 기능의 효율 제고가 필요하나 특히 생산자 조직 강화에 의한 산지직결 체제의 확충은 유통 마진 축소의 지름길 이다. 76. 8. 농협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마진은 소(牛)의 경우 총마진은 상인 조직을 경유할 경우는 19%이나 농협 계통 출하시는 8.4%이며 유통 비용도 12.4%에서 5.0%로 절감된 것은 생산자 조직에

(表5) 농협 계통출하시 축산물 유통마진

	농가수취 가격	유통 마진		
		유통비용	순마진	계
소	91.6	5.0	3.4	8.4

의한 유통 기능 수행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둘째로는 공정 거래 제도의 확립이다. 생축이나 지육 공히 규격 제도가 확립되고 가격 형성도 자유 경쟁 제도(경매)가 도입 확충 되어야 한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 통제 가격제도의 지속은 유통 조직의 破行과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완화가 시급하다. 우형기의 증설과 커트미트 제도의 활용으로 중량및 품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물론 식육 소매상의 대형화와 포장의 개선도 공정 거래 제도 확립을 위하여 선결 되어야 할 과제다. 셋째 가격 안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의 강화로 자율적인 생산 및 출하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축산물 비축 시설의 설치와 비축기금의 확보는 물론 기준 가격 제도의 도입으로 일정 범위 이상으로 가격이 등락 될때는 가격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금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축산 진흥 기금의 활용도 이의 한 대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소득 수준의 향상은 육류의 대량 소비 시대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고 강인한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해서도 육류는 또한 대량 소비되어야 한다.

육류 대량 소비에 대비한 유통 구조의 혁신은 축산물의 증산에 못지않는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며 줄고를 끝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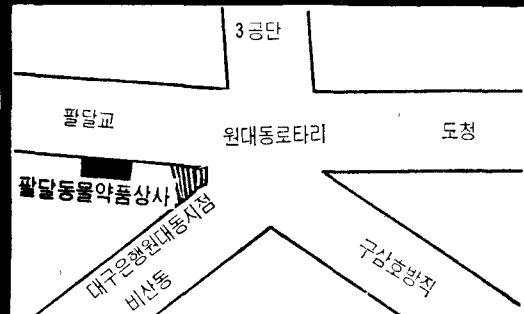


시리즈 ② 류코싸이토준병

팔달

가축병원

동물약품상사



국내외 유명 수의약품 완비
친절한 환축(患畜)상담
주문에 신속한 공급

고단위 수용성 종합비타민

비 타 골드

수리사 김재성